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       |                    |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00 오전 11:00<br>영어미사 12시 30분 | 성사                | 고백 성사                | 미사 30분전  | 예비자<br>교리   |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
|       | 평일 미사              |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                   | 유아 세례                | 2주일 전 신청 |             |                    |
| 신심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지속적인<br>성체조배      | 환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 통신교리 - 전화문의 |                    |
|       |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                   | 혼배 성사                | 3개월 전 신청 |             |                    |
|       | 향심 기도회             |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                   |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          |             |                    |
| 주일 학교 | 매주일 오전 11:00-12:15 | 한국학교                             | 토요일 오전 9:40-12:50 |                      |          |             |                    |



[제1독서] 신명 18, 15-20  
 [화답송] 시편 95(94), 1-2, 6-7, 11, 12, 72-9 (72과 8과)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모았다." ◎

[제2독서] 1코린 7, 32-35  
 [복음 환송송] 마태 4, 16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음] 마르 1, 21-28

|    |        |        |        |            |        |
|----|--------|--------|--------|------------|--------|
| 성가 | 8시 미사  | 입당 337 | 봉헌 212 | 성체 151 197 | 파견 411 |
|    | 11시 미사 | 입당 337 | 봉헌 212 | 성체 151 197 | 파견 411 |

## 주일 전례 봉사

| 구분     | 연중 제 4주일(2월 1일) |             | 연중 제 5주일(2월 8일) |             | 연중 제 6주일(2월 15일) |      |
|--------|-----------------|-------------|-----------------|-------------|------------------|------|
|        | 8시미사            | 교중미사        | 8시미사            | 교중미사        | 8시미사             | 교중미사 |
| 미사해설   | 채성일토마스          | 1구역:황혜정데레사  | 임승원루카           | 2구역:조선덕레지나  | 정애리스텔라           | 3 구역 |
| 제 1 독서 | 강신희요한           | 1구역:이창용레이몬드 | 최환준베네딕토         | 2구역:최환준베네딕토 | 정일환프란치스코         | 3 구역 |
| 제 2 독서 | 김영선안젤라          | 1구역:이경란베로니카 | 최수영베네딕타         | 2구역:손정옥리디아  | 정영희글라라           | 3 구역 |
| 보편지향기도 | 독서자             |             | 독서자             |             | 독서자              |      |

## 새롭고 권위있는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향하십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회당을 찾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유대인 회당 예배는 의식적인 부분과 교훈적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교훈적인 부분을 맡으셨던 것 같다. 율법과 예언서의 한 부분을 읽고 해석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이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고 한다. 유대인이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왜 그리도 놀라워하였을까?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을까?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율법 학자들도 권위 있게 가르쳤겠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펼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분이 어떻게 새롭게 권위 있었는지는 더러운 영의 외침을 통해 드러난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분의 권위는 세상과 사람들의 권위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뜻한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를 들어 높이려 한 반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셨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 이렇게 가르친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리 2, 6-7)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필리 2, 9)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권위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언제나 율법에 의해 세상을 단죄하시는 분으로 소개했던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억압했다면,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롭게 권위 있는 가르침임에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새롭게 권위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주장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새롭게 권위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우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할 힘과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윤만용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신공항 본당 주임

생명의 말씀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법, 겸손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회당에서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의 세력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만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를 외칩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랑을 외치며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을 침소봉대합니다. ‘교황님이 다녀가셨는데 왜 한국 교회는 바뀌지 않느냐?’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바뀔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탈바꿈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난 받고 죽음을 겪으셨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더러 바꾸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자신부터 사랑을 실천해야만 사랑의 교회가 됩니다.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더러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어느 사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수녀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영성의 대가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끈질기게 요청하는 바람에 요한 신부님은 수녀님의 체험을 글로 적어 보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느냐? 이것은 영의 체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비를 체험한 후 저술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신비에 비하면 자신이 언급한 하느님에 관한 모든 진술은 ‘지푸라기와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신비체험의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자신이 먼저 합시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령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규만 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깨어있다’는 것은  
과거의 묶은 자신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을 부수고  
온갖 허물을 깨끗이 치우고  
깨어나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것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에서

말씀의 향기

어머니의 기도

저는 경북 김천시 모암동 작은 동네에서 자란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뛰어노는 걸 좋아해 한번 밖에 나가면 들어올 줄 모르고 뛰놀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친정의 가장이었던 어머니는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사촌 형이 갑자기 업어치기를 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땅 밑에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 형들과 자주 체육관에 가곤 했습니다.

처음 들어설 때 상당히 엄숙하고 저를 압도하는 기합소리가 기억나는데 유도와 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그땐 유도에 폭 빠진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유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운동이 얼마나 힘들고 냉혹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운동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은 체육관에 못 가게 절 잡으시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 오는 모습이 저에게는 아직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습니다.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정신력을 본받았나 봅니다. 잠도 별로 안 주무시고 새벽 일찍 깨서 고된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리러 성당에 가셨습니다.

성당 문은 5시에 열리지만 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성당 밖에서 기도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막상 운동을 시작했지만 실력은 항상 첫판 탈락이었고, 중학교 2학년까지 입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회에서 한 번도 못 이기는 아이가 운동을 하니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집안일과 교복 만드는 일을 하며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지만, 고생하

시는 어머니를 웃게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눈만 뜨면 유도를 생각하면서 노력한 끝에,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는 대회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시절 마지막 무렵에 체육관 코치님이 전국대회 출전을 권유했습니다. 전 정말 기뻐했습니다. 1등은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놀러 가는 기분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었을까요? 전 꿈인지 궁금할 정도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유도 인생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갈라 1.15-16)

최민호 바오로  
유도 코치

성경산책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

오늘의 제1독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하느님께 청한 기도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모세’ 하면 보통 영화 ‘십계’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하느님께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은근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탈출 19,1-20,17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뚝 선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자, 이집트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탄압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최악의 상태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탈출 2,1-10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우연한 사건은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연속이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수업과정이 되었습니다.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탈출 2,11-25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에 관한 세부 지침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 팔호속을 채워 보세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 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 )”께서  
나를 너희에게 내셨다.’하여라. (탈출3,14)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 )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탈출3,17)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탈출 3,1-22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위인도 우리처럼 부족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 날짜      |   | 지 향         | 봉 헌 자      |
|---------|---|-------------|------------|
| 2월 1일 일 | 연 | 정벤자민(대업)    | 정데레사(혜경)   |
|         | 연 | 이마르코(재상)    | 가족         |
|         | 연 | 이케네스(상열)    | 가족         |
|         | 연 | 임그레고리오(재선)  | 임레지나       |
|         | 연 | 서마리아(덕기)    | 이미카엘(종규)가족 |
|         | 연 | 김제이슨(재성)    | 김케네스가족     |
|         | 연 | 김보나벤추라(상국)  | 박데레사       |
|         | 연 | 이크리스토퍼(선근)  | 정카타리나(상은)  |
|         | 연 | 박마리아/전대석    | 전데레사       |
|         | 연 | 김중화         | 정데레사(혜경)   |
|         | 연 | 이성원         | 정데레사(혜경)   |
|         | 생 | 본당신부님       | 전데레사       |
|         | 생 | 정아가다(청자)축일  | 찬미성가대      |
|         | 생 | 황아가다(순정)축일  | 찬미성가대      |
|         | 생 | 전다니엘(순복)    | 전데레사       |
|         | 생 | 신미카엘(경호)    | 신엘리사벳      |
|         | 생 | 자녀들가정       | 신엘리사벳      |
|         | 생 | 크리스토퍼 오쿠모토  | 신미카엘라      |
|         | 생 | 김그레이스(민정)   | 전수산나       |
|         | 생 | 김에드워드(지성)   | 김케네스가족     |
|         | 생 | 김에드워드(지성)   | 익명         |
|         | 생 | 정이준         | 이베로니카      |
| 2월 3일 화 | 연 | 최베드로(휘종)    | 가족         |
| 2월 5일 목 | 연 | 본당선종연령      | 선종봉사회      |
|         | 생 | 김아가다(윤선) 축일 | 김아네스(순이)   |
|         | 생 | 김에드워드(지성)   | 송베로니카      |
|         | 생 | 이정우         | 전수산나       |
| 2월 7일 토 | 생 | 레지오활성화      | 구리아        |
|         | 생 | 김알렉스(지호)    | 김엘리사벳      |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구분     | 8시    | 11시     | 주일학교 | 합계      |
|--------|-------|---------|------|---------|
| 미사참석인원 | 81    | 199     | 20   | 300     |
| 헌 금    | \$415 | \$1,057 | \$32 | \$1,504 |

< 교무금 > \$2,440

권영현(1-2) 이정숙(1-2) 김현수(1-2) 양인심(1-2)  
박영실(1-2) 팽현팔(1-2) 김원덕(1-2) 채성일(1-2)  
이상주(1-12) 박호영(1) 유낙양(1-2) 이순열(1)

< 성소후원금 > \$50

박영실(1-2) 박호영(1)

< Bishop's Appeal >

박영실(1-2)

< 감사헌금 > -

< 초봉헌 >

박영자 \$20

~~~~ 오늘 간식은 이기하 비오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주님봉헌축일(2월 2일)을 맞아 초축복 예식을 오늘 교중미사 중에 거행합니다.

1년 동안 전례에 사용될 초와 전례용품을 봉헌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복해 드립니다.

◆ 전례 안내

- \* 2월 5일 : 저녁 7시 30분 성시간
- \* 2월 7일 : 성모신심미사(꾸리아월례회)
- \* 2월 15일 : 설합동위령미사(11시 합동미사)  
\*\* 아침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 2월 18일 : 재의 수요일(단식과 금육)

◆ 환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2월 6일) 아침미사 후

◆ 지속적인 성체조배 안내

2월 6일(금) 저녁 9시 ~ 2월 7일(토) 아침 7시까지

◆ 설합동위령미사봉헌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예비자 입교식

- 일시 : 2월 8일(다음주) 교중미사 중
- 신청 : 사무실
-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성지가지를 2월 15일까지 성당입구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2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 사목회의 : 2월 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요아킴회/안나회 : 다음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대건회 : 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재정위원회의 : 다음주 교중미사 후 성당입구 방

**1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2  | 캐스트로벨리E/W반 | 1월31일(토)6시 | 허은희마리아덕         |
| 3  | 알바니B반      | 1월31일(토)6시 | UC Village Room |

◆ 본당 울뜨레야 모임

2월 8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간사 선출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여성 10차 꾸르실료 주말 봉사자 신청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간사) 510-688-0157

◆ 각 구역 전례봉사자 모집

교중미사 중 독서와 미사해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반장님이나 사무실로 알려 주십시오.

◆ Brown Bag 봉사활동과 후원요청

- \* 금년도 Brown Bag 배급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1년 등록비 \$10을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Brown Bag 식료품 구입과 수송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자의 Donation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 및 문의 : 친교실 Brown Bag Desk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아가타(2/5) : 이원숙, 조순임, 정청자, 육순화, 송분학, 이윤자, 황순정

**주일학교 소식**

- 영어미사 : 오후 12시 30분